

국가가 독점하던 고려의 인쇄·출판

독서의 풍속사 — 2

강명관 |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우리나라 중세의 출판은 국가와 관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고려에는 출판을 전담하는 관청이 있었는데, 원래 내서성이었다가 뒤에 전교시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인쇄의 주류는 목판인쇄였다. 목판은 주로 지방 관아에서 제작했고, 그 보관과 관리 및 인쇄는 개경의 중앙관청인 비서성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책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출판할 수 있다. 학문적·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책을 쓰기는 어렵지만, 책을 쓰고 출판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허용된다. 내 책이 상업성이 없어 출판사에서 거부할지라도, 또 보잘것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출판에 필요한 비용을 치를 자세가 돼 있다면 출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중세사회에서 책의 출판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지금 정부에서 모든 출판을 국가가 독점한다고 선언했다고 하자. 이견 언론·출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정상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것이 정상이었다. 우리나라 중세의 출판은 국가와 관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조선후기에 오면 방각본이란 상업적 출판물이 나오지만, 전체 출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출판을 관장하던 최고 기관인 전교시

고려 역시 국가가 출판을 거의 독점했다. 출판을 전담하는 관청이 있었던 것이다. 이 관청의 명칭은 원래 내서성(內書省)이었는데, 뒤에 비서성(秘書省)·비서감(秘書監)·전교서(典校署)·전교시(典校寺) 등으로 자주 바뀌었다. 명칭 변경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자리에서 곰비임비 따질 만큼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여기서의 최후의 이름인 전교시를 대표 명칭으로 삼아 보자. ‘전교시’의 ‘전교’는 쉽게 말해 ‘교서(校書), 곧 책의 교정을 관장한다는 의미다. 곧 출판을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고려사》는 ‘전적(典籍)과 향축(香祝)을 관장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전교시의 구체적인 활동 메커니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다만 몇몇 사료로 ‘겨우’ 유추할 만한 것들은 있다.

고려시대의 출판물이란 것은 대개 목판본이다. 고려의 인쇄·출판

이라 하면, 금속활자의 발명 운운하면서 목청을 높이게 마련이지만, 미안하게도 금속활자 인쇄술은 인쇄·출판의 주류적 수단이 아니었다. 고려·조선 가릴 것 없이 인쇄술의 대종은 역시 목판 인쇄다. 그런데 이 목판이 제작되는 곳이 문제가 된다. 전교시는 요즘으로 치면 출판사다. 지금 출판사가 자체 인쇄소를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즉 출판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이 전교시라고 해서, 모든 목판을 전교시에서 제작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고려사》를 훑어보면 지방에서 책을 찍어서 올렸다는 기록이 더러 보인다. 예컨대 정종 8년(1042)과 문종 12년(1058), 문종 13년(1059)에 경주·충주·안서도호부·남원 등에서 책을 찍어서 올리자, 그 일에 종사한 관원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이 때 제작된 목판은 개경의 비서성으로 옮겨졌다. 비서성은 앞서 말한 것처럼 전교시와 같은 관청이다.

이런 사례로 보아 목판은 주로 지방 관아에서 제작했고, 그 보관과 관리, 인쇄는 개경의 중앙관청인 비서성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서적의 제작에 관한 명령이 지방 관아로 내려지면 지방 관아에서는 그 명에 따라 목판을 제작해 개경의 비서성으로 올려보냈던 것이다. 개경에서 책판을 소장·관리한다는 것은 책의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 책을 찍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방의 자체 판단으로 책을 찍기도 했을 것이고, 또 지방의 책판이 남김없이 서울로 이관된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목판을 지방에서 제작해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 주류가 아니었나 싶다.

서적의 인쇄를 전담하던 서적점

그렇다면 어떤 책의 목판이 만들어졌던 것이며, 또 그것의 총량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숙종 6년(1101) 3월에 왕이 비서성에 목판이 너무 많이 쌓여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국자감(國子監)에 서적포(書籍鋪)를 설치하고 목판을 이관해 책을 발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봐, 11세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목판이 제작된 것은 분명하다.

전교시 이외에 책과 관련이 있는 관청이 있었다. 《고려사》에 등장하는 서적점(書籍店)·서적원(書籍院)·서적포(書籍鋪)·서적소(書籍所)처럼 ‘서적’이란 명사가 포함된 관청들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서적소는 서적을 모아 두고 왕과 신하들이 학문을 강론하는 곳이었고, 서적의 인쇄·출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서적점은 어떤 곳인가? 《고려사》〈백관지〉를 보면 서적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종(1046~1083)이 설립하였다. … 충선왕이 한림원(翰林院)에 병합하였다가 뒤에 다시 두었다. 공양왕 3년에 혁파하였다. 4년에 서적원을 두어 주자(鑄字)와 서적 인쇄를 관장시켰다. 영(令) 승(丞)이 있었다.”

서적점은 문종 때 만들어진 것이니, 꽤나 오래된 것이다. 그리고 공양왕 4년에 서적원을 설치했다 했으니, 서적원은 사실상 서적점과 같

은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는 서적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고려사》를 아무리 훑어봐도 뭐라고 말할 꼬투리가 잡히지 않는다.

서적점에 관한 언급은 임 춘(林椿)의 문집인 《서하집(西河集)》의 발문에 꼭 한번 더 나온다. 《서하집》은 이인로가 편집한 것인데, 당대 무인정권의 실력자인 최충헌의 아들 최 우(崔瑀)가 인쇄를 주선했다. 《서하집》의 말미에 붙어 있는 최 우의 〈후서(後序)〉에 따르면, 그가 서경의 여러 학원(學院)에 보내 목판을 제작하게 한 뒤 개경으로 목판을 옮겨와서 서적점에 맡겨 인쇄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서적점은 목판의 제작보다는 서적의 인쇄를 전담하는 곳이었음이 분명하다.

국자감 부설기관으로 설치된 서적포

그런데 ‘점’이란 것은 대개 ‘가게’를 의미한다. 지금도 책 파는 곳을 서점(書店)이라 하지 않는가? 《고려사》의 서적점을 소개하고 있는 자료를 보면, 서적점 전후에 ‘복두점(幞頭店)’ ‘취선점(聚仙店)’ ‘경선



고려의 인쇄·출판 하면 금속활자를 떠올리지만, 금속활자 인쇄술은 주류가 아니었다. 고려의 출판물은 대개 목판본이다. 사진은 해인사 장경판고에 보관된 팔만대장경.

점(慶仙店)’ 등의 관청이 소개돼 있다. ‘점’자가 붙은 관청이 오로지 서적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복두점·취선점·경선점은 무엇을 하는 곳이었는가? ‘취선’과 ‘경선’이 무슨 말인지 알 도리가 없으니, 이 역시 별반 도움이 안된다. 다만 ‘복두’란 머리에 쓰는 모자이니, 복두점이 모자를 제작해 파는 곳이었다면, 서적점도 서적을 인쇄해 파는 곳이 아니었을까? 궁금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책의 출판과 인쇄를 관장하는 비서성(뒷날의 전교시)이 있는데, 왜 서적점을 만들었을까? 양자의 관계는 어떠했던 것인가? 더 이상 추측할 자료가 없으니, 갑갑하기 짝이 없다.

서적포는 앞서 조금 언급한 바 있다. 즉 서적포란 이름은 앞서 언급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는 고려의 출판문화를 이해하는데 장애(?)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대장경과 금속활자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데 몰두해 서적의 출판·인쇄와 유통의 사회사적 맥락을 읽어내는 데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것처럼 숙종 6년 3월에 비서성의 목판이 관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넘치자, 국자감에 서적포를 뒤 목판을 이관해 관리와 책의 인쇄 보급을 맡게 했다는 기사에 처음 보인다. 국자감에다 서적포를 둔 것은 국자감이 학교였고 따라서 서적의 수요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은 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은가? 요즘 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교과서는 봐야 하는 법이다.

말이 난 김에 국자감 이야기를 좀 해보자.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설치된 것은 성종 11년(992)이었다. 국자감에는 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학(四文學)의 세 과정이 있었다. 이 외에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 등의 전문적 직업학교도 있었는데, 국자학·태학·사문학과 합쳐서 ‘경사(京師) 6학’이라 했다. 이런 과정에서 배웠던 교과목들은 《고려사》에 남아 있는데, 그건 사실 책이름일 뿐이다. 《논어》《효경》… 이런 식이다. 국자감의 국자학·태학·사문학의 학생 정원은 각각 3백명이었으니, 총원은 9백명이다. 그런데 “국자감과 사문학은 학생이 6천명”이라는 중국 쪽 기록도 있다.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만, 엄청난 수의 학생이 재학 중이었던 것은 분명한 일이다. 이런 규모의 학생이면 당연히 교과서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서적포를 국자감의 부설 기관으로 설치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인 것이다.

서적점의 ‘점’과 마찬가지로 서적포의 ‘포’ 역시 ‘가게’ ‘상점’을 뜻한다. 이 곳은 목판으로 책을 찍어 학생들에게 판매했던 곳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 외의 사항은 역시 미상이다. 서적포를 통해 책이 인쇄돼 유통됐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세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서적포와 서적점의 관계는 어떠했던가? 이 역시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아서 미안하지만, 이 역시 자료의 결핍에 이유가 있다. 또 하나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팔만대장경과 금속활자도 이 글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장애(?)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대장경과 금속활자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데 몰두해 서적의 출판·인쇄와 유통의 사회사적 맥락을 읽어내는 데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